



## “日 또 꺾어주마”... 오늘 한·일 ‘3차대전’



선발 봉중근, 윤석민-정대현-임창용 필승 계투  
김태균-이용규 “다르빗슈 격침” 특명... 4강 직행

결국엔 또 만났다. ‘영원한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세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 18일 낮 12시(이하 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리는 2라운드 1조 한국-일본의 승자전 결승은 4강 진출 티켓이 걸려 있는 중요한 관 대결이다.

△선발 대결 = ‘좌완’ 봉중근과 광속구 투수 다르빗슈 유가 제3차 한-일 야구전쟁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예상했던 선발 카드이기에 분석을 마친 양팀 타선이 언제 폭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출신 봉중근은 아시아라운드 1-2위 결정전에서 일본을 5와 3분의1이닝동안 삼진 2개를 곁들이며 3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잠재웠다. 5만여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도 일본의 간판스타 스즈키 이치로의 예봉을 완벽하게 꺾었던 봉중근이 특유의 배짱을 앞세워 5회까지만 버텨준다면 한국에 승산이 있다. 다르빗슈는 193cm의 큰 키로 최고시속 150km를 뚫는 광속구를 뿌리는 일본 리그 최고투수다.

한국전에는 1-2위 결정전에 등판해 1이닝 동안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1안타와 1볼넷을 허용했다. 아웃코스 승부를 고집하는 다르빗슈를 상대로 노려치기에 집중한다면 의외로 쉽게 약점을 찾을 수도 있다.

△최강의 볼펜 싸움 = 한국과 일본의 최대 강점은 역시 두터운 볼펜진이다. 이번 대회 참가국 중 투수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팀은 선발이 흔들리면 곧바로 볼펜투수들을 기용할 것이다. 한국은 정현욱의 재발견이 가장 큰 성과다. 정현욱은 일본을 1과3분의2 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슈아내며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았고, 멕시코전에서는 2와 3분의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처리했다.

구위를 회복한 김광현도 투입이 가능하고 승기를 잡는다면 ‘필승 계투조’인 윤석민과 정대현, 임창용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국킬러’ 언더핸드 와타나베 슌

스케, 좌완 스기우치 토시아 뿐 아니라 퍼시픽 리그 트리플크라운의 이와쿠마 히사시, 강속구의 마하라 타카히로, 최고의 마무리 후지카와 규지까지 몽땅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4번 타자 화력 쇼 = 김태균과 무라타 슈이치의 주포 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태균은 이번 대회에서 17타수 7안타로 타율 0.412, 2홈런, 9타점을 기록하며 ‘해결사’로 거듭났다. 마쓰자카를 상대로 140m짜리 초대형 2점홈런을 올렸던 김태균은 1-2위 결정전에서 천금같은 결승타를 터뜨렸고, 멕시코전에서는 역전 솔로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올려담았다. 지난 해 46홈런을 터뜨렸던 일본 거포 무라타 역시 이번 대회에서 타율 0.333에 2홈런, 7타점을 올렸으나 현재의 컨디션만 비교하면 김태균의 위력이 앞서는 분위기가.

△테이블 세터 출루 경쟁 = 테이블 세터의 출루율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1번타자 스즈키 이치로는 19타수 4안타에 볼넷 1개도 얻지 못해 타율과 출루율이 0.211에 그치고 있지만 4안타를 모두 한국전에서 뽑았다. 도쿄돔에서 가장 끌려왔던 2번타자 나카지마 히로유키가 감기로 인해 컨디션이 저하된 점이 다행이지만 찬스에 강한 3번 아오이 노리치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한국은 이종욱이 15타수 3안타로 부진한 것이 맘에 걸리지만 이용규와 고영민이 살아난 것이 큰 힘이다.

△수비가 관건 = 큰 경기일수록 수비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유격수 박진만이 부상으로 탈락했고 3루도 주인을 찾지 못해 잠시 허둥했다. 하지만 이범호가 확실하게 3루 주전을 굳히고 수비력이 뛰어난 고영민이 2루를 커버하면서 내야가 훨씬 안정됐다. 내야가 자리를 잡으면 투수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기에 총출동 일본 내야와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다르빗슈〉



‘3차대전’ 앞둔 사령탑은  
김인식 감독 ‘여유’  
하라 감독 ‘초조’



숙명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 야구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세번째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웃나라끼리 자존심을 걸고 이른바 ‘야구전쟁’을 치르게 됐지만 결전을 하루 앞둔 양팀 사령탑의 표정은 대조를 이뤄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16일(이하 한국시간) 강적 쿠바에 완승을 거둔 ‘사무라이 재팬’의 하라 다쓰노리 일본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밤 늦게 열린 한국-멕시코 경기에 전력분석요원을 대거 투입해 면밀하게 경기를 분석했다.

그리곤 일본 대표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2라운드가 열리는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1시간30분 가장 공식 훈련을 가졌다.

반면 한국 대표팀은 경기가 없는 이날 훈련도 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자유시간을 줬다.

김성환 수석코치는 “어제 밤 늦게 경기를 마쳐 선수들이 피곤한 상태다. 이럴 때는 훈련보다 쉬는 게 보약”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도 달콤한 늦잠으로 피로를 풀 뒤 낮 12시께 숙소에서 20여분 가장 떨어진 한국식당으로 아침 겸 점심식사 나들이를 나섰다.

한국과 일본 양팀은 지난 10일 애리조나 캠프 첫날부터 행보가 달랐다. 9일 저녁 아시아라운드를 마치고 마자 밤 비행기로 미국에 건너왔던 한국은 다음 날 시차 적응을 위해 훈련없이 하루를 쉬었지만 한국보다 30분 늦게 비행기에 탑승한 일본은 숙물림 틈 없이 곧장 훈련에 들어갔다.

양팀의 관이한 훈련 스타일은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비난이 쏟아지는 일본 국민과 과정보다는 결과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한국 사회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인식 감독은 “일본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정도로 크다”고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속내를 토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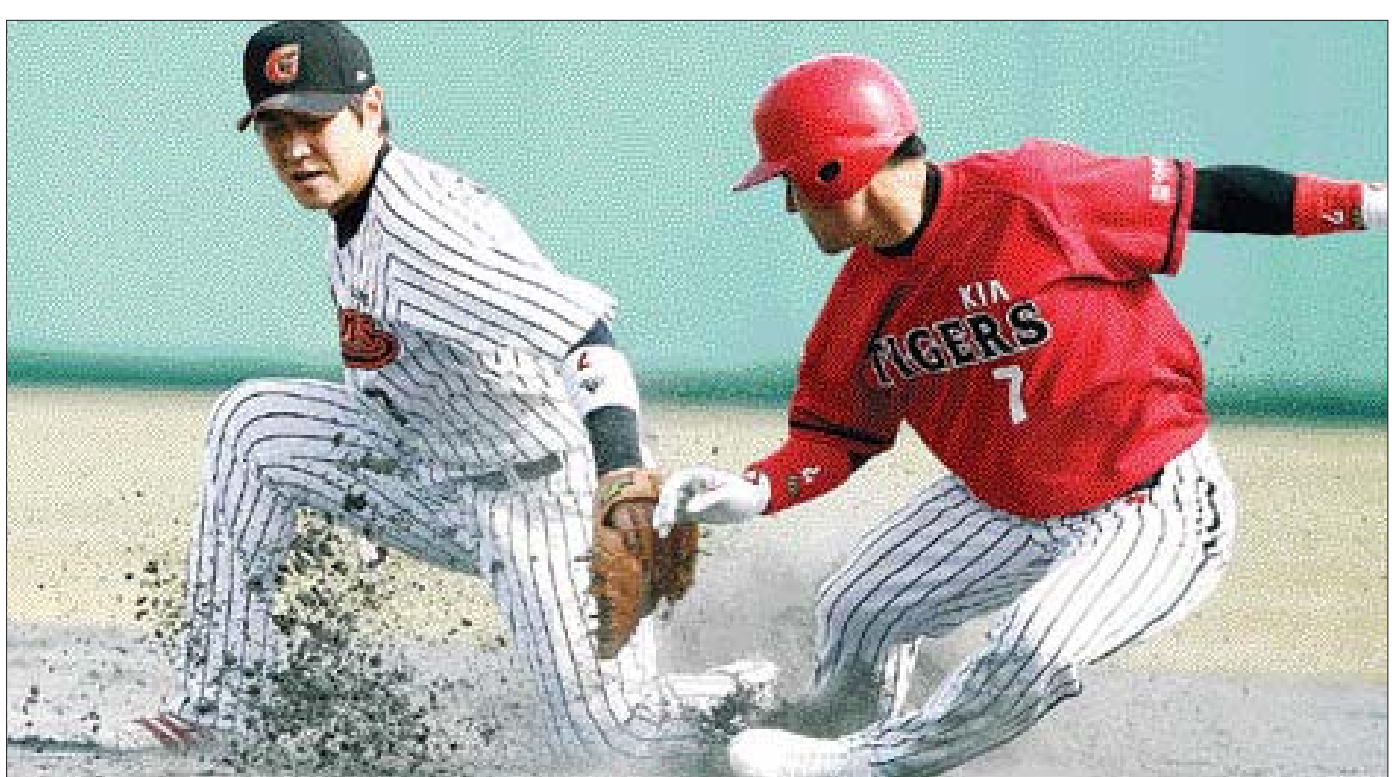
하지만 두번의 올림픽과 두번의 WBC에서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한국에 2승7패로 충격적인 열세에 빠져 있는 일본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 같다. 일본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야구대표팀에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비장한 이름을 걸었다.

“한국에 도전한다는 자세로 나서겠다”고 자존심마저 굽혔던 하라 감독은 아시아라운드 1차전에서 콜드게임승을 거두고도 “이번 승리로 열등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도쿄돔 1-2위 결정전에서 주력투수들을 몽땅 쏟아부었고 한국에 0-1로 허탈하게 봉쇄돼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한·일 야구전쟁’의 최종 결말을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팬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코칭스태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선수들은 투지를 불사르는 영연히 이어지는 속셈만이 존재할 뿐이다.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이 17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 7회초 2사1루 이현곤의 타석 때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 KIA ‘차세대 거포’ 나지완 침묵 시범경기 롯데에 2-3 패

KIA 타이거즈가 17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 뒷심 부족으로 2-3으로 역전패 당했다.

양팀은 1회부터 점수를 주고 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KIA는 상대 투수 허준혁이 컨트롤 난조를 보이는 틈을 타 1회초에 공세를 퍼부었다. 선두타자 이종범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이현곤과 최희섭이 볼넷을 얻어내며 1사 만투의 기회를 잡았다.

5번 타자 나지완이 결정적인 타점 기회에서 2루수 플라이 아웃으로 돌아섰지만, 재중

범이 좌전 안타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며 2-0으로 앞서나갔다.

롯데도 이어진 1회말 조성환의 2루타와 홍성흔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하는 등 뜨거운 타격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1회 득점 이후 KIA 방망이가 침묵했고, KIA 공격이 주춤한 사이 롯데의 반격이 시작됐다.

5회 김민성이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를 훔쳤고, 이소화의 2루타 때 홈을 밟으며 승부는 2-2원점으로 돌아갔다.

6회말 롯데 이인구가 선두타자 볼넷으로

출루한 뒤 조성환의 안타와 중견수 이종범의 실책으로 홈을 파고들면서 2-3으로 경기가 뒤집혔다.

KIA는 이후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시범경기 2연승 후 첫 패배를 기록했다.

선발 구토스는 주자 관리에 실패하며 2실점하기는 했지만 5이닝 6피안타 3탈삼진으로 선전했다. 타석에서는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재중범이 돋보였다. ‘차세대 거포’ 나지완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3경기 연속 안타 제조에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